

충남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발전연구원이 개원된 지 어언 1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싱크 탱크가 되고자 충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개원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은 우리에게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화시대가 전개되어, 시장논리에 따른 경쟁력만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결정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외환위기를 통해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정책적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등장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이 국정기조로 정착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차원에서의 지난 10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의 개통도 있었지만, 신행정수도건설 문제는 조선 개국 당시 계룡천도 논란 이후 지역 차원에서의 최고 대사이었습니다.

위헌 판결 이후 비록 신행정수도의 중간단계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었지만, 충남은 향후 국가혁신을 주도하는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봅니다.

그러나 충남발전연구원은 연륜이나 조직, 연구원 규모 등을 볼 때 아직 '열살 먹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끊임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창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며 충남 개혁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아직도 솔직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이 요구하는 고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할 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봅니다. 환황해권의 중심지역인 충청남도가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연구원이 이만큼 성장하는데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은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